

# MARC의 聯關著錄에 있어서 書誌的 關係의 處理

吳 東 根\*

## 목 차

### 서 론

#### I. 서지적 관계의 종류

#### II. 전통적 목록에서의 서지적 관계의 처리

#### III. MARC 포맷에서의 서지적 관계의 처리

#### 결론

## 서 론

目錄은 기본적으로 저자명이나 서명, 주제명을 접근점으로 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전통적인 檢索道具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해당자료 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자료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면, 이용자의 자료접근에 대한 요구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목록에서도 상호관련된 저작들이 주제명표목이나 저자명, 분류번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태상으로 나뉘어져 있거나, 대상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서로 관련된 서지자료에 대한 서지적 단위와 같이, 상호관련된 서지적 단위를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참조나 내용주기, 分出著錄 등은 이와 같이 서로 관련된 서지자료를 연결시키기 위한 방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MARC 포맷에서도 聯關著錄(linking entry)이라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는 필드를 설정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UNIMARC에서 도입된 이래로 각국의 포맷에 반영되고 있는 연관저록은 MARC 포맷에서 서지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연결시키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특징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KORMARC 포맷에서는 이 필드를 형식적으로만 설정한 채 사용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KORMARC 포맷의 개선이라는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목록에 반영되어야 할 書誌的 單位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가 전통적인 목록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KCR3 및 AACR2R 등 기존의 편목규칙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한편, UNIMARC와 USMARC, KORMARC 등 기존의 MARC 포맷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연관저록의 필요성과 그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서지적 관계의 종류

편목의 대상이 되는 자료에 대한 서지적 단위는 단순히 어떤 기술대상자료를 식별해주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많은 서지적 단위와 구별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밝혀주기도 한다. 전통적인 목록에서도, 主題名標目은 동일한 주제에 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저작을 한곳에 모아주게 되며, 분류번호도 서가상이나 서가목록, 온라인목록에서 유사한 저작을 한곳에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은 특정저자에 의한 저작을 함께 모으게 되는데, 典據統整을 통하여 이들이 한곳에 일관성있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sup>1)</sup> 이와 같은 방법들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관련레코드를 인접한 순서로 분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저작의 知的 예술적 내용을 구현하는 출판물이라는 물리적 형태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자료들이 갖게 되는 서지적 관계는 크게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연대적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sup>2)</sup>

垂直的 關係(vertical relationship)는 개개의 자료와 이를 포함하고 있는 총서와의 관계나 저널기사와 이를 수록하고 있는 저널과의 관계와 같이, 전체와 그 전체를 구성하

1) Walt Crawford. *MARC for Library Use; 2nd ed Understanding Integrated USMARC.* Boston, G.K.Hall & Co., C1989. p.171.

2) UNIMARC: *Universal MARC Format.* 2nd. ed. p.58.

는 각 부분 및 각 부분과 이로 이루어지는 전체와의 관계로서, 계층적관계(hierarchical relationship)라고도 한다.

이때 총서나 저널과 같이 더 포괄적인 것을 상위레벨의 서지적 단위라 하고, 각 권의 자료나 기사와 같은 그 반대의 것을 하위레벨의 서지적 단위라 한다.<sup>3)</sup>

水平的 關係(horizontal relationship)는 서로 다른 언어나 형식, 매체 등으로 이루어진 어떤 저작의 여러 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어떤 하나의 저작이 구체화된 하나의 자료는 물리적으로는 유일한 것이지만, 동일한 저작이 구체화된 다른 자료와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이 동일한 저작이 구체화된 자료 상호간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라 하는 것이다.

年代的 關係(chronological relationship)는 연속간행물의 선행지와 후속지의 관계와 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출판물 상호간의 시간적 관계를 말한다.

한편 식별이 가능한 서명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다른 자료와 조합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한, 복합매체자료(kit)나 보유자료와 같은 자료들이 있다.

그리하여 다음에는 이와 같은 서지적 관계가 편목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전통적 목록에서의 서지적 관계의 처리

전통적인 목록에서 자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공통의 주제를 다루거나 공통의 저자에 의해 이루어진 자료를 동일한 표목을 사용하여 목시적으로 함께 모으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표목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소위 基本著錄(main entry)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본저록은 어떤 자료를 검색하고 식별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가장 기본적으로 기록한 저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본저록만으로는 이용자의 자료에 대한 검색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조할 수 있는 補助著錄(additional entry)이라는 추가의 저록이 필요하게 된다. 보조저록에는 부출저록(added entry)과 分出著錄(analytical entry), 참조(reference)의 세종류가

3) 丸山昭二郎. 新 目錄法と書誌情報. 東京, 雄山閣, 1987. p.105.

있다. 이 가운데 공저자명이나 역자명, 서명, 주제명 등을 표목으로 하는 부출저록은 서지적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혀주기 위한 기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부출저록과 참조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다.

## 1. 分 出

분출(analytics)은 포괄적인 저록이 이미 작성된 어떤 자료의 일부를 기술하는 서지레코드를 준비하는 과정<sup>4)</sup>을 말하며, 이 과정에 의해 작성된 저록을 분출저록이라 한다. 이와 같은 분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대표적인 자료로는 畵集과 총서, 보유자료 등이 있다.

우선 叢書에 포함된 단행본을 기술할 때에는 총서사항이나 주기사항에 표시하는 방법들이 서지레벨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로부터 전통적으로 목록기술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인용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다권본의 記述에 있어서는 그 계층적 관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多段階記述法과 분립저록의 방법이 사용된다. 아울러 분출적 부출저록의 방법도 분출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a) 分出的 副出著錄 : 상위저작에 대한 포괄적인 저록의 서명저자 표시사항이나 주기사항에 해당부분에 대한 固有名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출저록을 작성하게 되는데,<sup>5)</sup> 이를 분출적 부출저록이라 한다. 이 방법은 주로 카드목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sup>6)</sup> 상위의 서지레벨로 작성된 서지기술을 그대로 살려 복제하여 하위레벨의 저작명을 접근점으로 하는 부출저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때 이 부출표목은 해당부분의 기본표목이나 본서명, 통일서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방법은 해당부분에 대한 추가의 서지레코드를 작성하지 않고서, 해당부분에 직접 접근하고자 할 때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표목을 통하여 상위레벨의 저작과 하위레벨의 저작을 별도로 접근하게 된다.

4)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1988 revision. Chicago, ALA, 1988. p.299.

5) Loc. cit.

6) 丸山昭二郎 編. *op. cit.*, p.109.

b) 單行本 叢書의 分出 : 어떤 자료가 단행본 총서로서 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의 서명과는 독립적인 서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완전한 서지기술을 담고 있는 분출저록을 작성하게 된다. 이때는 이를 포함하는 상위의 서지레벨에 속하는 포괄적인 저작(총서)에 관한 세목은 총서표시사항에 기재하게 된다.

인간회복의 정치론 / 장을병 지음. — 서울 : 평민사,  
1982. — 270p. ; 21 cm. — (정치외교총서 ; 4)

c) 註記事項 : 상위저작에 대한 포괄적인 저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그에 수록된 각 부분은 내용주기에 열거하게 된다. 즉 '그 도서가 두개 이상의 저작을 종합서명 또는 대표서명 아래 수록하고 있는 것은 그 저작들의 전체 또는 중요한 것 또는 선발된 부분의 내역을...註記'하는 것이다. 결국 합집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과 같이, 하위의 서지레벨에 속하는 자료는 내용주기(contents note)로서 주기사항에 기술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분출방식 중 가장 단순한 것<sup>8)</sup>으로서, 해당부분에 대한 서지적 기술은 대개 서명의 인용이나 고유명 및 서명에 한정되게 된다.

韓國現代文化史大系 /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 . .

목차: 1: 文學 藝術史. 2-3: 學術 思想 宗教史(上, 下). 4-5: 科學  
技術史(上, 下). 6: 政治 經濟史. 7-8: 文化運動 民族抗爭史(上, 下)

d) 分立著錄 : 분립저록은 합집이나 총서의 경우 이에 포함된 개개의 저작에 대하여 일반 단행본의 경우처럼 개개의 저작에 대한 서지적 정보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술해주고, 그 수록처에 대해서도 서지적 정보를 완전히 주기해주는 방식을 말한다.<sup>9)</sup> 분립저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기술을 작성하고, 이어서 이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레벨에 대한 주기사항에는 동양자료의 경우는 '수록처:',<sup>10)</sup>서양서의 경

7) 「韓國目錄規則」. 3版(記述. 標目올림指示篇).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3.

8) AACR2R. *op. cit.*, p.300.

9) 정필모. 「目錄組織論」.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1988. p.116.

10) 「韓國目錄規則」. 3版. *op. cit.*, pp.88-89.

우는 'In.'이라는 導入語句를 앞세워, 서명저자사항과 판차사항, 발행사항, 권책의 次序 등 간단한 인용을 제시하게 된다.

兩班傳 / 朴趾源 原著 ; 李民樹 翻譯. -- p.1-15 ; 19 cm

. — 원문: p.13-15

수록처: 燕巖選集 / 朴趾源 原著 ; 李民樹 翻譯. — 서울 :

通文館, 1956. — 第1輯

e) 多段階記述法 : 다단계기술은 통상 국가서지에서, 또는 자료전체의 기술을 주요요소로서 제시하는 단일레코드에서, 해당부분과 포괄적인 전체 양쪽에 대한 완전한 식별을 필요로 하는 저록을 작성하는 편목기관에 의해 사용된다.<sup>11)</sup> 이 방법은 계층적 완전기술방식이라고도 하는데,<sup>12)</sup> 결과적으로 한 목록저록 안에 한 도서의 全帙에 대한 정보와 해당권책에 대한 정보를 전체와 부분의 계층순으로 각기 완전히 기술하는 방식인 것이다. 대개의 경우 제1계층기술은 그 기술의 主部를 이루는 것으로 그 도서의 전질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의 기록이 되며, 제2계층기술은 해당권책에 대한 정보의 기록이 된다.

李光洙全集. — 서울 : 三中堂, 1962-1963. —

19책 : 사진, 초상 ; 20 cm

第1卷: 無情 ; 開拓者 ; 初期의 文章. — 1962. — 576 p.

第2卷: 再生 ; 革命家の 아내 ; 삼봉이네집. — 1963. — 542 p.

## 2. 參 照

목록에 있어서 참조란 '어느 하나의 표목이나 저록으로부터 다른 표목이나 저록으로 지시하는 것'<sup>13)</sup>을 말한다. 이와 같은 참조에는 저록의 표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항목에서 채택된 항목으로 안내하는 '보시오'(see) 참조와, 서로 관련된 표목 사이에 상호참조 하도록 하는 '도 보시오'(see also) 참조의 두종류가 있다.

11) AACR2R. *op. cit.*, p.302.

12) 「韓國目錄規則」. 3版. pp.86-87.

13) AACR2R. *op. cit.*, p.621.

서지적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판 사이의 수평적 관계나 先行誌와 後續誌사이의 연대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은 참조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圖書館文化

는

圖協月報도 보시오.

### 3. 一般註記事項

주기사항에는 서지적 기술의 서명저자 표시사항에서 총서사항까지의 定形的 기술부의 어느 사항이나 요소에도 해당되지 않는 정보나, 또는 이미 기재한 정형적 기술에 대한 설명적 보완적 정보가 기술된다. 따라서 앞서의 서지적 관계는 필요할 경우 이 주기사항에 서지적 來歷에 관한 주기 등으로서 기술될 수 있다.

『표준조선말사전』의 개제서임

초판서명: 朝鮮 | 進分類表

### 4. 獨立著錄

식별이 가능한 서명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다른 자료와 조합되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자료가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일반적으로 다른 자료와 조합하여 하나의 서지적 단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복합매체자료(kit)와 補遺資料(supplementary item)가 있다.

複合媒體資料는 학습교재와 강의용 녹음테이프와 같이, 둘 이상의 범주의 자료를 포함한 것으로서, 어느 쪽이 본체이고 어느 쪽이 부속물인지 분명치 않은 복합자료이다. 종합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명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자료표시를 덧붙여서, 종합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multimedia'나 'kit'라는 일반자료표시를 덧붙여 하나의 서지적 단위로서 저록을 작성하게 된다.<sup>14)</sup>

14) AACR2R. *op. cit.*, pp.56-57.

보유자료는 문제집에 대한 별책해답집이나 목록에 딸린 별책색인과 같이, 주종관계가 명확한 자료로, 이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서지적 단위로서 취급된다. 이중 특히 보유자료(supplement)와 색인 등<sup>15)</sup>은 별도의 자료로서 취급되어 별도로 목록이 작성되며, 본자료와는 접근점과 주기사항을 통하여 연결되게 된다.

### Ⅲ. MARC 포맷에서의 서지적 관계의 처리 결과<sup>16)</sup>

MARC 레코드의 데이터필드는 대개 입력하는 대상자료를 기술하는 데이터요소를 수록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형태상으로 나뉘어져 있거나 기술대상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관련된 서지자료를 레코드에서 참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총서명필드(UNIMARC의 225 총서필드, USMARC의 4XX 총서사항필드 및 800-840 총서명부출표목필드)와, 저자/서명부출표목(UNIMARC의 520-541 기타관련서명필드 및 7-- 지적책임블록, USMARC의 7XX 기타부출표목필드), 内容註記(UNIMARC의 327 필드, USMARC의 505 필드) 등이 그와 같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필드들은 결과적으로 필요한 경우 앞서 살펴본 분출과 관련된 서지적 처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필드들임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편목규칙의 방법에 따른 이와 같은 총서필드와 내용주기필드, 부출표목필드는 分出을 위한 여러가지 요건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어떤 구성요소부를 나타내는 데는 적합치 못한 경우가 생기게 되고, 어느 경우에는 충분히 상세한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sup>17)</sup>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지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MARC 포맷에 마련된 특징적인 필드가 聯關著錄필드(linking entry field)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에는 연관저록과 MARC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밖의 서지적 관계 표현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5) *ibid.* p.351.

16) 본고에서는 서지적 관계에 대한 고찰에 한한다. MARC의 레코드내연결(intrarecord link)에 대해서는 Walt Crawford. *op. cit.* pp.173-176 참조.

17) Walt Crawford. *MARC for Library Use; Second edition Understanding Integrated USMAR*. C. Boston, G.K.Hall & Co. C1989. p.177.



### 1. 關聯著錄

연관저록은 '기술대상자료와 어떤 특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서지적 자료를 참조해야 할 경우에 이용될 수 있는 것'<sup>18)</sup>이다. 결과적으로 연관저록은 서로 관련된 사항을 연결시키기 위한 MARC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방법으로서, '檢索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단순한 기술사항이 될 수도 있으며, 참조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sup>19)</sup>이다. 따라서 연관저록필드는 입력하고자 하는 레코드가 이미 입력된 레코드와 연관이 있어 이를 나타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한 레코드 내에서 표시자 간에 연관이 있는 데이터를 짝지우고자 할 경우에 사용된다.<sup>20)</sup>

연관저록에서는 앞서 살펴본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연대적 관계 등을 나타내게 된다. 이를 위하여 관련된 레코드의 레코드 識別番號나, 저자와 서명 등의 데이터요소를 수록하게 된다.

이 연관저록 필드는 UNIMARC에 도입된 이래로, USMARC과 CHINESE MARC, KORMARC 등에도 도입되었으며, JAPAN MARC의 경우도 連續刊行物用的 경우 이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음에는 각 MARC 포맷별로 이를 대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각 포맷에 설정되어 있는 연관저록필드를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연관저록필드의 설정은 UNIMARC의 가장 큰 특색의 하나<sup>21)</sup>인 동시에 가장 참신한 특징<sup>22)</sup>이라고 지적되고 있듯이, UNIMARC에서는 연관저록을 별도의 블록으로 설정하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UNIMARC에서는 연관저록을 크게 여섯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은 連續刊行物과 관련된 것이다. 실제로 UNIMARC의 연관저록 필드

18) Sally H. McCallum. MARC Record-Linking Technique.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Sept. 1982. p.282.

19) 玄圭燮. "國際汎用自動化目錄法(UNIMARC)에 대한 豫備的 考察". 「國會議圖書館報 157(1982. 3)」. p.40.

20)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표준포맷 단행본용.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4. P.73.

21) 石田俊郎. "JAPAN/MARCの問題點". 「圖書館界」33(3). 1981.9. p.135.

22) Ellen Gredley and Alan Hopkinson. *Exchanging Bibliographic Data; MARC and Other International Formats*.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1990, p.186.

〈표 1〉 포맷별 연관저록필드의 비교

UNIMARC		USMARC		CHINESE MARC		KORMARC*		JAPAN MARC**	
표시자	필드명	표시자	필드명	표시자	필드명	표시자	필드명	표시자	필드명
410	총서	760	기본총서	410	총서				
411	하위총서	762	하위총서	411	하위총서				
421	보유자료	770	보유/특수발행	421	보유자료	451	보유관		
422	모체자료	772	모체레코드	422	모체자료	452	모체자료		
423	합본	777	합본	423	합본				
430				430					
—	선행저록	780	선행저록	—	선행저록			430	선행저록
437				437					
440				440					
—	후속저록	785	후속저록	—	후속저록			440	후속저록
448				448					
451	동일체제의 異版	775	異版	451	동일체제의 異版	465	동일형식異版		
452	다른체제의 異版	776	여타물리저형식 異版	452	다른체제의 異版	466	다른형식異版		
453	로 번역	767	번역	453	로 번역	468	번역		
454	의 번역	765	원어	454	의 번역				
461	집합수준	773	기본자료	461	집합수준				
462	부분집합수준			462	부분집합수준				
463	각권수준	[773]	[기본자료]	463	각권수준				
464	각권분출수준			464	각권분출수준				
448	기타관련저록	787	비특정관계	448	기타관련저록	474	분립저록연관		

\* KORMARC의 경우 490 부출되지 않거나 변형되어 부출되는 총서명 필드는 연  
관저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논외로 함.

\*\* JAPAN MARC의 경우는 연속간행물용의 예임.

의 명칭은 전통적인 목록레코드에서 연결을 위해 작성되는 주기의 연속 간행물의 명칭과  
관련된 것이다.<sup>23)</sup>

첫번째의 총서와 보유자료 등의 범주에는 총서(410)와 하위총서(411), 보유자료(421),  
補遺資料의 母體資料(422), 합본(423)이 해당한다. 총서필드는 편목대상자료와 이를 포함  
하고 있는 총서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이와 관련된 필드로는 기술블록의 총서필  
드(225)가 있는데, 이 필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편목관례에 따라 단행본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필드의 데이터요소가 표목으로 확정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23) Loc.cit.

에는 접근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밖의 경우에는 410 필드에 총서와 관련된 삽입레코드를 수록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225 필드는 ISBD의 총서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고, 410 필드는 총서저록의 접근점의 형식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게 된다.<sup>24)</sup> 하위총서필드는 편목대상 연속간행물(총서)과 그에 포함된 하위총서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총서필드(410)는 총서와 하위총서 사이에 上向연결(upward link)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고, 하위총서는 下向연결(downward link)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게 된다.

보유자료필드는 편목대상자료와 그 보유자료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보유자료판의 모체자료는 편목대상 보유자료와 그 모체자료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합본필드는 다른 자료와 함께 제본된 자료처럼, 함께 발행된 다른 서지적 자료를 편목대상자료와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두번째의 先行著錄(preceding entries)과 세번째의 후속저록(succeeding entries)은 각각 편목대상 연속간행물과 先行誌, 편목대상 연속간행물과 後續誌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앞서의 연대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를 대비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UNIMARC의 선행저록필드와 후속저록필드 대비표

선행저록필드		후속저록필드	
표시자	필드명	표시자	필드명
430	의 속간	440	로 속간
431	의 일부속간	441	로 일부속간
432	의 대체	442	로 대체
433	의 일부대체	443	로 일부대체
434	의 합병	444	로 합병
435	의 일부합병	445	로 일부합병
436	와 의 합병	446	와 로 분리
437	의 분리	447	와 의 합병으로 - 발행
		448	原題還元

24) UNIMARC Manual. London, IFLA UBCIM, 1987. p.410.

\_\_의 속간(Continues) 필드(430)와 \_\_의 일부속간(Continues in part) 필드(431)는 새 자료가 호수를 변경시키지 않은 채로 선행지를 대체할 경우에 사용한다. \_\_의 대체(Supersedes) 필드(432)와 \_\_의 일부대체(Supersedes in part) 필드(433)는 새 자료가 선행지를 대체하면서 선행지의 호수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한다. \_\_의 흡併(Absorbed) 필드(434)와 \_\_의 일부합병(Absorbed in part) 필드(435)는 어떤 연속간행물이 선행지를 합병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그 자체의 호수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 사용한다. \_\_의 분리(Separated from) 필드(437)는 새 자료가 현재도 발행되고 있는 자료의 일부였던 경우에 사용한다. \_\_와 \_\_ \_\_의 합병(Formed by merger of \_\_ \_\_ and \_\_) 필드(436)는 편목대상 연속간행물과 둘 이상의 합병된 선행 연속간행물을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_\_로 續刊(Continued by) 필드(440)와 \_\_로 일부속간(Continued in part by) 필드(441), \_\_로 대체(Superseded by) 필드(442)와 \_\_로 일부대체(Superseded in part by) 필드(443), \_\_로 합병(Absorbed by) 필드(444)와 \_\_로 일부합병(Absorbed in part by) 필드(445)는 후속지와 연결을 위해 사용되게 된다. \_\_와 \_\_ \_\_로 분리(Split into \_\_ \_\_ and \_\_) 필드(446)는 편목대상 연속간행물과 여기에서 분리된 둘 이상의 연속간행물을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_\_와 \_\_의 합병으로 \_\_ 발행(Merged with \_\_ and \_\_ to form \_\_) 필드(447)는 편목대상 연속간행물과 합병된 연속간행물 및 합병으로 탄생된 연속간행물을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原題還元(Changed back to) 필드(448)는 편목대상 연속간행물과 이의 선행지인 동시에 후속지가 되는 연속간행물을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이 필드는 어떤 연속간행물이 그 명칭을 변경했다가 다시 환원시킨 경우에, 그 중간의 연속간행물에 대한 레코드에서 사용되게 된다.

내번제의 異版(other editions)의 범주는 수평적 관계를 표현하게 된다. 동일매체의 이판(Other edition in the same medium) 필드(451)는 편목대상자료와 동일매체로 된 그 자료의 이판을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다른 매체의 이판(Other edition in another medium) 필드(452)는 다른 매체로 된 자료의 이판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_\_로 번역(Translated as) 필드(453)는 편목대상자료와 그 자료의 번역본을 연결시

키기 위해 사용되고, \_\_의 번역(Translation of) 필드(454)는 번역본인 기술대상자료와 그 원본을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다섯번째의 水準(level)의 범주에는 집합(set)과 부분집합(subset), 각권(piece), 각권 분출(piece-analytic)의 네종류<sup>25)</sup>가 있는데, 이것은 계층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집합수준은 공통의 서명으로 식별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지적 단위의 그룹으로, 총서와 연속간행물, 전집, 다권본의 단행본(multivolume monograph)이 포함된다. 부분집합수준은 상위집합의 일부를 나타내는, 공통의 서명으로 식별되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서지적 단위의 그룹이다. 각권수준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하나의 서지적 자료이다. 各卷分出水準은 각권의 일부로서 각권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서지적 자료를 말한다. 이와 같은 수준을 나타내는 필드들은 레코드구조에서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에 대한 별도 레코드의 연결을 강조할 경우에만 사용되게 되며, 각각 해당수준의 서지적 단위에 대하여 연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집합수준 필드(461)와 부분집합수준 필드(462)는 각각 집합수준과 부분집합수준에서 계층적으로 연결된 자료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연결이 이루어지는 대상자료는 461 필드의 경우는 集合水準, 462 필드의 경우는 부분집합수준의 것이 되며, 각 필드를 수록하게 되는 레코드는 461 필드의 경우는 각권수준이나 부분집합수준, 462 필드의 경우는 각권수준이나 부분집합수준, 집합수준의 것이 된다. 461 필드에서 각권이나 부분집합으로부터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연결은 항상 상향연결이 된다. 462 필드도 일반적으로 각권이나 부분집합에 대한 레코드에서 상위수준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상향연결을 위해 사용된다. 다만 어떤 집합에서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연결만은 그 집합이 계층구조상 최고수준이 될 것이므로, 下向연결이 사용되게 된다.

각권수준 필드(463)와 각권분출 필드(464)는 각각 각권수준과 각권분출수준의 자료에 대해 이루어지는 계층적 연결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연결이 이루어지는 대상자료는 463 필드의 경우는 각권수준, 464 필드의 경우는 각권분출수준의 것이 되며, 각 필드를 수록하게 되는 레코드는 463 필드의 경우는 各卷分出水準이나 부분집합수준,

25) UNIMARC Manual. op.cit. p.242.

집합수준, 464 필드의 경우는 각권수준의 것이 된다. 463 필드는 일반적으로 각권분출에 대한 레코드에서 그 각권분출을 포함하고 있는 각권으로 이루어지는 상향연결을 위해 사용된다. 다만 어떤 집합에서 각권으로 이루어지는 연결은 하향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464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각권분출에 대한 연결은 하향연결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각권이 최고수준을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각권분출에 대한 레코드에서 463 필드를 사용하여 각권으로 上向연결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계층적 연결을 포함하고 있는 레코드의 처리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레코드레이블의 8번째 자리(계층적 수준 코드)에 레코드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게 된다. 이것은 이 연결을 포함하고 있는 레코드의 변환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이를 포함하고 있는 레코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레코드의 데이터가 필요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sup>26)</sup>

마지막으로 기타의 기타 관련저작(Other related work) 필드(488)는 다른 4-필드에 그 특정의 관계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자료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편목대상 자료와 다른 자료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UNIMARC의 각각의 연관저록 필드에는 연결되고 있는 자료를 식별해주는 삽입된 表示字와, 지시자, 서브필드 코드와 함께 데이터요소를 수록하게 된다. 이때 이 필드의 데이터는 연결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레코드, 또는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 자체를 충분히 식별해줄 수 있는 데이터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관저록 필드의 일반적 형식은 다음과 같다:

지시자는 제1지시자와 제2지시자가 사용되는데, 제1지시자는 현재 정의되지 않고 있다. 제2지시자는 레코드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이 필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레코드의 프린트나 그밖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註記를 작성하는지의 여부를 지시하게 된다. 레코드가 디스플레이되는 경우(1)에는, 특정의 필드표시자가 연결이 이루어지는 자료와 편목대상 자료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나타내는 텍스트로, 레코드 입수기관의 관례에 알맞는 어법에 따라 변환되도록 하고 있다.

26) Ellen Gredley and Allan Hopkinson. *op.cit.* p.189.

지시자 b0나 b1	서브필드 식별자 \$1	서브필드 데이터	서브필드 식별자 \$1	서브필드 데이터	...	필드 종료기호
---------------	--------------------	-------------	--------------------	-------------	-----	------------

서브필드 식별자로는 \$1(연관데이터)이 사용된다. 각각의 연관데이터 서브필드에는 완전한 표시자와 지시자, 서브필드코드를 갖춘 데이터필드를 수록하게 된다. 다만 삽입되는 001 필드의 경우는 지시자나 서브필드 식별자 없이 표시자와 레코드 식별번호만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 연관데이터 서브필드(\$1)는 각각의 삽입필드에 대해 반복사용이 가능하다. 연관필드에 연결된 레코드의 레코드 制御番號만 수록되게 되는 경우에는, 배포를 위해서는 이 레코드가 동일한 파일에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연관데이터 서브필드에 의해 삽입되는 필드는 디렉토리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삽입레코드의 필드를 처리하는 방법은 레코드의 본체의 필드 처리방법과는 아주 달라지게 된다.

한편 UNIMARC에서는 완전레코드에서 작성되어야 할 연관필드의 必須필드와 임의 필드를 규정하고 있다.<sup>27)</sup> 필수필드에는 001 레코드 식별번호, 500 통일서명(또는 500 필드가 없는 경우에는 200 \$a 본서명), 7-- 주요저자(있는 경우), 206 자료특성사항: 지도자료- 수치데이터가 포함된다. 임의필드에는 010 ISBN, 011 ISSN, 101 저작의 언어, 102 출판국 또는 제작국, 123 코드화 데이터 필드: 지도자료-축척과 經緯度, 200 \$a 본서명(미수록의 경우), 200 \$f 첫번째 저자표시, 200 \$v 권호표시, 205 판표시, 210 출판, 배포 등, 225 총서, 500 통일서명(미수록의 경우), 510 대등본서명, 530 핵심서명이 포함된다.

USMARC의 UFBD에서는 레코드간 연결(inter-record link)를 제공하기 위한 연관저록 필드를 76-부터 79- 사이에 마련하고 있다.<sup>28)</sup> USMARC의 연관저록 필드는 원래 연속간행물 사양서에만 정의되어 있었으며, 索引作成을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자료의 레

27) UNIMARC Manual. op.cit. p.220.

28) USMARC에 있어서의 연관저록필드의 도입과정에 대해서는 Walt Crawford. op.cit. pp.177-185 참조.

코드에 대한 기계적인 연결을 제공하지 못하는 서지적 자료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정보를 수록하였으나, 이후의 개정을 통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sup>29)</sup> UFBID의 연관저록 필드는 현재 어떤 연속간행물과 관련된 연속간행물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연대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도 아울러 대비하고 있는데, 특히 수직적 관계와 관련하여 계층적 관계와 전체/부분의 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다루고 있다.

USMARC에서는 서지레코드가 작성되는 기본적인 자료인 基本資料(host item)와, 기본자료와 어떤 서지적 관계를 갖게 되는 관련자료(related item)로 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sup>30)</sup> 관련자료에 대한 데이터가 연관저록 필드에 수록되게 되는 것이다.

기본총서저록(Main series entry) 필드(760)는 대상자료가 수직적 관계에 있는 하위 총서일 경우에 관련된 기본총서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게 되며, 차위총서저록(Subseries entry) 필드(762)는 대상자료가 기본총서나 모체가 되는 하위총서일 경우에 관련된 하위 총서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게 된다. 따라서 이 필드들은 각각 UNIMARC의 410, 411 필드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SMARC에서는 연속간행물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原語著錄(Original language entry) 필드(765)는 대상자료가 번역일 경우 그 원어로 된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며, 번역저록(Translation entry) 필드는 대상자료가 원본이거나 다른 번역본일 경우 원본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출판물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게 된다. 따라서 이 필드들은 각각 UNIMARC의 454, 453 필드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補遺/특수발행저록(Supplement/Special issue entry) 필드(770)는 대상자료와 관련되어 있으나 별도의 레코드로서 목록이 작성되거나 입력되는 보유자료나 특수발행자료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며, 모체레코드 저록(Parent record entry) 필드(772)는 대상자

29) USMARC Formats for Bibliographic Data Including Guidelines for Content Designation (UFBID). Washington D.C., LC. 1988. p.76X-79X page 12.

30) USMARC의 연관저록 필드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Sally H. McCallum. op.cit. p.281; UFBID. op. cit., pp.76X-79X page 2 - 3 참조.



료가 모체자료의 한호나 보유자료, 특수발행자료일 경우 관련된 모체자료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게 된다. 따라서 이 필드들은 각각 UNIMARC의 421, 422 필드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본자료저록(Host item entry) 필드(773)는 레코드에서 기술되고 있는 構成要素部(component part)/하위단위(subunit)에 대하여 기본자료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필드는 분출레코드(analytical record)를 작성하기 위한 필드로서, 구성요소부나 하위단위에 대하여 서지레코드를 작성하고 이 필드에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세목을 수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필드는 리더의 7번째 자리의 서지적 수준에 단행본 구성요소부(a)나 연속간행물 구성요소부(b), 하위단위(d)로 표시된 경우에만 사용되게 된다. 그러므로 이 필드는 UNIMARC의 461 필드와 463 필드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다.

異版저록(Other edition entry) 필드(775)는 해당저작의 다른 입수가능한 이판에 대한 저록을 수록하게 된다. USMARC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판의 유형으로는 대개 동일한 출판사에 의해 둘 이상의 언어로 동시에 발행되는 연속간행물과 같은 언어판(language edition)과, 정기적인 인쇄본의 再刷(regular-print reprint), 대개 대상자료와 동일한 서명을 가지고 있으나 판에 관한 정보에 차이가 있는 기타 판 등이 있다.<sup>31)</sup> 이 필드는 UNIMARC의 451 필드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물리적 형식저록(Additional physical form entry) 필드(776)는 동일서명을 가진 여러 물리적 형식의 레코드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UNIMARC의 452 필드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다.

습本著錄(Issued with entry) 필드(777)는 별도로 목록이 작성되기는 하지만 대상자료와 합본되어 있거나 이에 수록되어 있는 출판물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는 것으로, 지역적으로 제한한 것을 나타내는 동시제본(bound with) 註記(501 필드)이나 구성요소부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先行저록(Preceding entry) 필드(780)와 後續저록(Succeeding entry) 필드(785)는

31) UFBD. *op. cit.* pp.775-p.1-2.

각각 UNIMARC의 730-737 필드, 440-448 필드에 상당하는 것으로, USMARC에서는 이들 각 관계의 유형을 제2지시자로서 지시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비특정관계지록(Nonspecific relation entry) 필드(787)는 이상의 760-785 필드에 제시되지 않은 관계를 갖는 관련저작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게 된다.

USMARC에서 이상의 연관저록필드에는 관련자료에 대한 기술데이터나, 관련자료의 레코드에 대한 제어번호, 또는 記述데이터와 제어번호가 함께 수록하게 된다. 이 연관저록필드 외에도 USMARC에서는 레코드의 연결을 위하여 연관저록 복잡성 주기(Linking entry complexity note)(580 필드)와 연결된 레코드의 요건(Linked-record requirement)(리더/19)가 마련되어 있다. 연관저록 복잡성 주기는 대상자료와 관련자료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주기사항의 標出語나 연관저록필드나 연관된 레코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표현할 수 없을 경우에, 관련된 연관저록필드에 추가하여 사용된다. 연결된 레코드의 요건은 관련자료를 식별해주는 肉眼으로 식별할 수 있는 주기를 작성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연관저록필드에 제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관련된 레코드번호만이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지시하게 된다.

한편 USMARC의 연관저록필드에는 두개의 지시자가 규정되어 있다. 제1지시자는 연관저록필드의 데이터로부터 주기가 디스플레이 되는지의 여부를 지시하게 된다. 제2지시자는 780 필드와 785 필드에만 규정되어 있는데, 선행지와 후속지의 관계의 유형을 지시하게 된다.

서브필드의 경우는 UNIMARC에서 연관데이터 서브필드라는 별도의 서브필드를 앞세워 삼입필드의 형태로 연결되는 자료에 관한 레코드나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음에 비해, USMARC에서는 별도의 서브필드를 정의하고 있다.<sup>32)</sup> USMARC의 경우도 연관저록필드의 데이터는 실제데이터나 코드화 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USMARC에서는 각 필드에 대해 별도의 標出語(display constant)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표 3과 같다.

32) UFB. *op. cit.* pp.76X-79X pages 5-9.

〈표 3〉 USMARC의 연관저록필드 표출어 일람

표지자	지시자	표 출 어
760		Main series: 또는 Subseries of:
762		Has subseries:
765		Translation of:
767		Translated as:
770		Has supplement:
772		Supplement to:
773		In:
775		Other editions available:
776		Available in other form:
777		Issued with:
780	0	Continues:
780	1	Continues in part:
780	2	Supersedes:
780	3	Supersedes in part:
780	4	Formed by the union: ... and: ...
780	5	Absorbed:
780	6	Absorbed in part:
780	7	Separated from:
785	0	Continued by:
785	1	Continued in part by:
785	2	Superseded by:
785	3	Superseded in part by:
785	4	Absorbed by:
785	5	Absorbed in part by:
785	6	Split into: ... and ...
785	7	Merged with: ... to form ...
785	8	Changed back to:

CHINESE MARC의 경우는 UNIMARC에 준거하고 있으므로, 연관저록필드의 경우 UNIMARC의 정의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다.

KORMARC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聯關著錄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LC MARC와 UKMARC에 준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관저록필드를 KORMARC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규정한 것이었다.<sup>33)</sup> 이 필드들은 UNIMARC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으

33)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op.cit.* p.iv. 아울러 KORMARC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기사항에서 원서명, 부록, 합철, 내용 등 의 표출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며, 내용표지기호법은 UNIMARC와 같다. 다만 KORMARC에서는 분출대상이 되는 각각의 기입항목을 서로 연관지워 나타내기 위한 필드로 분립저록의 연관표시 필드(474)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연관저록필드의 사용은 보류되고 있다.

한편 KORMARC에서는 연관저록필드가 총서명사항 블록에 삽입되어 있다. 그 결과 총서명과 관련된 490 필드가 연관저록으로 인하여 분리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KORMARC에서도 연관저록필드의 포괄적인 채택과 아울러, 표시자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sup>34)</sup> 이를 위해서는 USMARC와 같은 방식의 채택이 바람직하다.

JAPAN MARC의 단행본용에서는 연관저록필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연속간행물용<sup>35)</sup>에만記入링크블록으로서 설정되어 있다. 이 블록의 서브필드에는 연결하는 改題前(430), 개제후(440)의 표제의 표시자 번호와 서브필드 식별자 및 데이터 내용을 수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브필드 식별자로는 연관데이터 서브필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관저록필드는 자료 사이의 서지적 관계를 효율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도입된 MARC의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실제적인 필드에 있어서는 UNIMARC와 USMARC, CHINESE MARC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관련 서지레코드의 효과적인 접근은 정보의 檢索과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KORMARC와 JAPAN MARC에서 이를 보다 광범위하게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6)</sup>

## 2. 聯關著錄 이외의 表現方法

연관저록이 MARC에 있어서 서지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MARC에는 전통적인 목록의 영향을 받은 표현방법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저록을 사용하지 않는 JAPAN MARC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별도의 방법을 설정하고 있다.

34) 吳東根. "MARC 포맷에 관한 비교연구(II)". 情報管理學會誌 제3권 제3호(1986. 12). p.92.

35) JAPAN/MARC マニュアル 逐次刊行物編.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88.

36) JAPAN MARC에 있어서 연관저록의 필요성은 小田泰正 등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다(小田泰正 et.al. JAPAN/MARCの利用システムとその問題點. 圖書館界 34 (4), 1983.1. p.314 참조).

UNIMARC와 USMARC에서는 연속간행물의 以前誌名(former title)을 다루기 위한 필드(각각 520, 247)를 설정하고 있다. 이 필드는 연속간행물의 지명만이 수록되며 별도의 연결법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방법은 연속간행물의 최신지명을 표목으로 하여 연속간행물의 레코드를 작성하는 시스템에서 레코드 사이에 연결을 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이전지명에 대한 레코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이 필드를 사용하여 이전의 지명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변경된 지명에 대해 별도의 레코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연관저록필드를 사용하여 이를 연결시키게 된다.

또한 전통적인 목록에서 공통의 주제명이나 공통의 저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그와 같은 자료에 대한 레코드를 한곳에 모으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UNIMARC와 CHINESE MARC에서는 典據레코드番號(Authority record number)에 대한 서브필드(\$3)를 주제명이나 개인명, 단체명을 나타내는 접근점 필드에 설정하고 있다. 이 서브필드에 의해 전거레코드번호에 의해 식별되는 전거레코드와의 연결이 가능해지게 된다. 전거레코드에는 주제명표목이나 저자명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참조도 수록되게 된다.<sup>37)</sup>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거레코드가 변경될 경우 모든 통제된 표목이 자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게 된다.<sup>38)</sup> 그러나 USMARC에서는 서지레코드의 표목과 전거레코드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JAPAN MARC에서는 서지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묵시적이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본 表記法에 못지 않는 독특한 방법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서명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에 관한 사항 필드(251)를 필드단위로 반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표시자 번호를 252, 253, ... 로 계속 사용하면서 251 필드에 제시된 서브필드들을 사용하여 별도의 서명을 표시하게 된다. 이것은 서명의 독음과 저자명의 독음으로 이루어지는 551 필드와 751 필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동일저자의 경우에

37) UNIMARC의 전거용 포맷으로는 *UNIMARC/A: UNIMARC format for authorities*. London, IFLA UBCIM Programme, 1990이 발행되었다.

38) Walt Crawford. *op. cit.*, p.186.

는 기술부의 서명에 관한 서브필드에는 각각의 서명을 중간점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서명의 讀音필드에서만 각각의 서브필드를 반복사용하여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JAPAN MARC에서는 다권본의 각권의 서명과 저자에 관한 사항 필드(291)를 설정하고 있다. 이 필드의 경우도 251 필드와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각권서명이 있을 경우에는 필드단위로 반복사용되고, 이것은 591 필드(다권본의 각권서명의 독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다권본에 대해서는 一括著錄을 작성하고 있는 JAPAN MARC의 경우에 있어서는, 251 필드에는 다권본의 종합서명이 입력되고, 591 필드에는 각권의 서명이 별도로 입력됨으로서 그 계층적 관계가 묵시적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다.

## 결 론

이상에서는 자료의 효율적인 검색을 위하여 서지적 단위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도입된 聯關著錄필드에 대하여 분석하였는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인 목록규칙에서는 자료의 서지적 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分出과 참조, 일 반주기사항, 독립저록 등의 방법을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다.
2. MARC 포맷의 연관저록필드는 원래 連續刊行物の 연대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으나, 전통적인 목록에 나타나는 서지적 관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單行本을 비롯한 그밖의 자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된 것으로서, MARC 포맷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3. UNIMARC와 USMARC에 설정된 연관저록필드는 서로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사용하는 용어와 標出語에 있어서 부분적인 차이를 보일 뿐이다.
4. KORMARC에 있어서도 관련자료와의 광범위한 서지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관저록필드를 포괄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KORMARC의 현행연관저록필드의 표시자는 76X - 79X로 옮기는 것이 필드별 블록화를 위해 바람직하다.

## 參 考 文 獻

### A. 基本資料

1. 國立國會圖書館. JAPAN MARC マニュアル. 第3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90.
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단행본용) - 표준용포□. 서울, 국립 중앙도서관, 1984.
3. 國立中央圖書館. 中國圖書機讀編目格式. 第2版. 臺北市, 國立中央圖書館, 1981.
4. UNIMARC: *Universal MARC Format*. 2nd edition revised.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80.
5. *USMARC Format for Bibliographic Data Including Guidelines for Content Designation*.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1988.

### B. 其他參考資料

1. 國立國會圖書館. JAPAN MARC マニュアル — 逐次刊行物 編 —. 第1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88.
2. 國立中央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자료집 1973 - 1983.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3.
3. \_\_\_\_\_. 국제표준서지기술법에 의한 한국문헌기술세칙 - 한국문헌자 동화목록법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1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2, (제2집. 1983; 제 3집. 1983).
4. \_\_\_\_\_.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단행본용) - 예비노트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3. (예비노트 보완판. 1985).
5. \_\_\_\_\_.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연속간행물용) - 실험용 포맷.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3.
6. \_\_\_\_\_.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책임. 국립중앙도서관 6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4.

7. \_\_\_\_\_ . 업무자동화추진위원회준비반.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단행본용) - 실험용포맷.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0.
8. \_\_\_\_\_ . 인쇄카드요람.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83.
9. 圖書館自動化作業規劃委員會. 中國機讀編目格式. 臺北市, 國立中央圖書館, 1982, (제2판. 1984).
10. 國立中央圖書館. 中國編目規則. 臺北市, 國立中央圖書館, 1983.
11. \_\_\_\_\_ . 中國編目規則簡編. 臺北市, 國立中央圖書館, 1985.
12. 日本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日本目錄規則 新版予備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1977.
13. \_\_\_\_\_ . 日本目錄規則 1987年版. 東京, 1987.
14. 정필모외. 전국도서관업무의 전산화방향(1983년 정책연구과제보고).
15.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목록규칙 3판(기술·표목을립지시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3.
16.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운영협의회. KORMARC WORKSHOP 텍스트북. 서울,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운영협의회, 1984.
17. 한국정보관리학회. 연속간행물관리의 전산화시스템. 서울, 1985.
18. Anderson, Dorothy.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A long term policy, A plan for action*. Pullach / Munchin, Verlag Dokumentation, 1974.
19.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Second edition revised, Chicago, ALA, 1988.
20. Avram, Henriette D. *MARC; its history and implications*.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75.
21. \_\_\_\_\_ . *The MARC Pilot Project: Final Report on a Project Sponsored by the Council on Library Resources, Inc*.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68.
22. Crawford, Walt. *MARC for Library Use. 2nd ed: Understanding Integrated USMARC*. Boston, G.K.Hall & Co. 1989.
23. *Information Transfer*. 2nd ed. Switzerland, ISO, 1982.



24. ISB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Annotated Text*.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77.
25.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 Distribution Service. *Format Integration and its effect on the USMARC Bibliographic Format*. Washington, LC, 1988.
26. Library of Congress, MARC Development Office. *Books: A MARC Formats specifications for magnetic tapes containing catalog record for books*. 5th edition, Washington, LC, 1972.
27. *MARC Formats for Bibliographic Data*. Washington, LC, 1980.
28. *Online Systems Books Format*. 3rd ed. Ohio, OCLC, 1986.
29. *Reference Manual for Machine-Readable Bibliographic Description*. 2nd revised ed. Paris, UNIBID, 1981.
30. Wells, A.J. *The International MARC Network: A study for an international bibliographic data network*. 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77.

## On the Processing of th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in the Traditional Cataloging Rules and the MARC Formats

### Abstract

Dong-Geun Oh\*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processing of th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in the MARC formats based on the analysis to the related cataloging rules.

In the traditional cataloging rules, many methods are used to process th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vertical, horizontal, and chronological), including analytics, references, notes, and independent entry.

Linking entry fields in the MARC formats have been introduced mainly to process the chronological relationship in the serials, but later expanded, as a characteristics in MARC format, to include other relationships applied to all other materials.

Comparative analysis on the linking entry suggests that there are rare differences between UNIMARC and USMARC formats except the terminology and display constants, and that it is desirable in the KORMARC and JAPAN MARC to introduce the linking entry more comprehensively.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